

라온시큐어 (042510)

올해 4분기, 예년과 다르다!

과거와 다른 24년 4분기: 신사업 매출 본격화

라온시큐어는 보안 솔루션 및 보안 컨설팅기업이다. 솔루션 사업과 서비스사업으로 사업영역이 구분된다. 지난 10년간 4분기의 매출 비중이 43.2%로 집중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모바일 신분증 사업,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사업 시작, 화이트해커 사업 성장 등이 4분기에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필요하다.

모바일 신분증: 한국에서 해외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19.10월)이 시작되었다. 21년 모바일 공무원증, 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당사는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부터 국내에서 진행된 국가 모바일 신분증 구축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관련 사업도 수주했다. 정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내 인도네시아, 코스타리카를 비롯하여 아시아/남미 등으로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B2C에서 B2B로

딥페이크 성범죄와 허위 뉴스 영상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딥페이크 탐지를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딥페이크 탐지 모델과 달리 국내 맞춤형 딥페이크 감지 안면 인식 기술을 개발 중이며, 연내 자사 플랫폼에 탑재할 예정이다. 향후 기업/기관 대상으로도 진출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화이트해커: 국내 유일 프리미엄 모의해킹

24년 상반기 민간분야 주요 사이버 위협동향(과기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분야 주요 사이버 사건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당사는 국가 지정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며 국내 유일하게 프리미엄 모의해킹 기업이며, 국내외 해커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다수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민간/공공/금융 등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어 매출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1A	2022A	2023A	2024F
매출액	433	468	518	596
영업이익	-10	43	-17	3
지배순이익	-66	67	42	54
PER	-25.8	17.6	23.6	21.7
PBR	5.5	3.1	2.9	2.2
EV/EBITDA	108.6	14.8	57.7	60.4
ROE	-21.0	19.3	9.9	11.0

자료: 유안타증권



권명준 스몰캡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NOT RATED (I)

목표주가 **-원 (I)**현재주가 (9/24) **2,080원**상승여력 **-**

시가총액 1,165억원

총발행주식수 56,025,871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45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1,918,429주

52주 고/저 2,940원 / 1,697원

외인지분율 0.69%

배당수익률 0.00%

주요주주 이순형 외 5인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10.8 (11.7) (11.7)

상대 11.7 (3.1) (1.3)

절대 (달러환산) 11.1 (8.1)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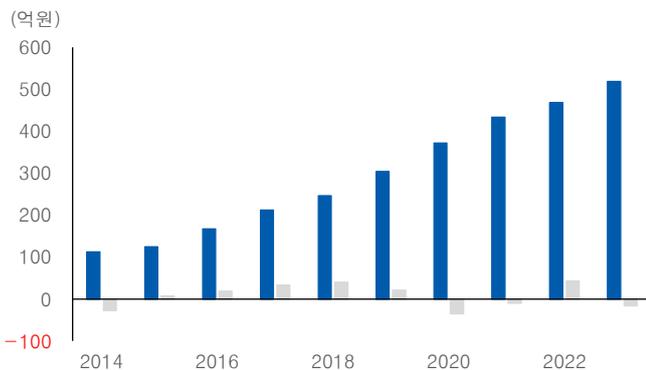
회사개요

라온시큐어는 보안 솔루션 및 보안 컨설팅기업이다. 솔루션 사업과 서비스사업으로 사업영역이 구분된다. 솔루션 사업에는 생체인증(FIDO) 기반 다요소 인증 플랫폼 원패스(One PASS), 통합 모바일 관리 스마트워크 플랫폼 원가드(One Guard), 통합계정 권한관리 플랫폼 터치앤와이즈엑세스(TouchenWiseaccess) 등이 있다. 원패스는 FIDO 얼라이언스로부터 세계 최초 FIDO Certified 인증을 받았으며, 신한은행 모바일뱅킹에 국내 최초로 FIDO 생체 인증 서비스를 시작한 플랫폼이다.

서비스사업에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 플랫폼(Omni One)과 인증 서비스, 화이트햇 등이 있다. DID(분산ID, Decentralized Identity) 플랫폼 제품명인 옴니원 엔터프라이즈(Omni One Enterprise)는 블록체인 기반이며,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시작으로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다수의 국가 모바일 신분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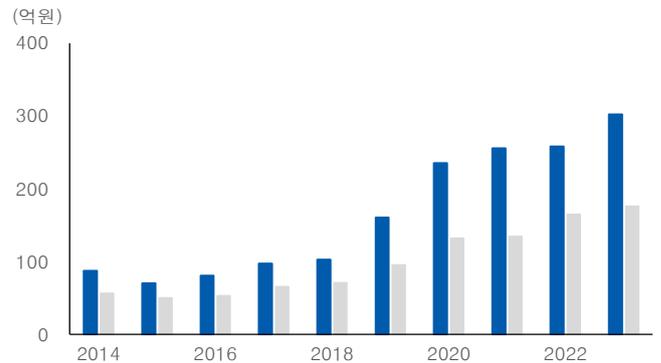
지난 10년간 꾸준한 매출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이후 연평균 18.5% 성장(2014년 112.0억원 → 2023년 518.4억원)하고 있다. 반면 영업이익은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고 있다.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R&D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당사는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이 R&D 관련 인력이며 모바일 신분증, 메타버스 플랫폼,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양자내성암호 솔루션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료: 라온시큐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연도별 판관비와 인건비 추이



자료: 라온시큐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기대되는 4분기

4분기를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첫번째 이유는 실적이다. 보안기업들은 공통적으로 4분기가 실적 성수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B2G, B2B 관련 수주가 4분기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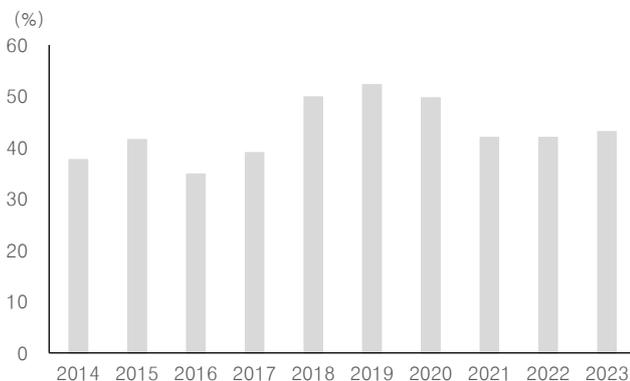
지난 10년간(2014~2023년) 동사의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 비중은 36.8% VS. 63.2%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4분기의 매출 비중은 43.2%에 달한다. 동사의 상반기 매출액이 240.7억원이었다. 지난 10년간의 평균과 유사한 흐름이 올해에도 이어진다면 하반기 매출액은 413.0억원, 4분기는 282.3억원이 예상된다는 의미이다. 2023년 4분기 매출액이 224억원에 영업이익 17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감안시 4분기는 전년대비 영업이익에서도 큰 폭의 개선이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 4분기 3가지의 성장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첫째는 모바일 신분증 사업이다. 현재 국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연내 인도네시아 등 해외사업 관련 수주 및 매출인식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관련 사업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동사는 딥페이크 감지 안면인식 기술을 연내 자사 모바일 보안 어플리케이션에 탑재할 예정이며 B2B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화이트해커 관련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련산업에서 매출액이 역 성장했지만, 기업 대상으로 한 사이버 사건 신고가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실적성장이 기대된다.

[그림 3] 연도별 4분기 매출 비중 추이



자료: 라온시큐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연도별 4분기 매출액 & 영업이익 추이



자료: 라온시큐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모바일 신분증: 한국에서 해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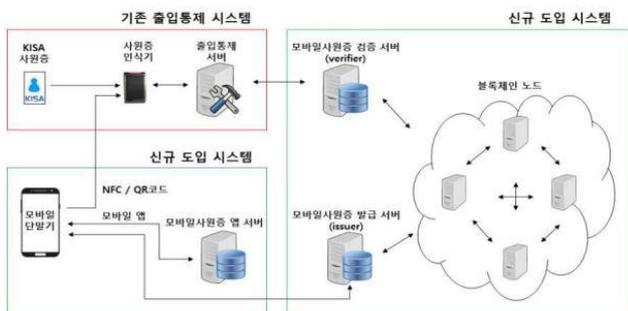
2019년 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이 시작되었다.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배경에는 AI/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가 표출, 이에 공공부문 ICT 활용현황 및 문제점 검토에 착수하여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에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KISA)의 주관으로 공공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한 모바일 사원증 도입을 추진(총 사업규모 17.63억)한다고 2020년 8월에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신원을 증명하는 서비스로 업무시스템의 QR코드를 모바일로 스캔하여 인증서 없이도 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DID(Decentralized IDentity) 기술이 적용된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의 모바일 신분증이다. 사업증 발급 및 출입 이력정보 등을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인증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이용자 스마트폰에 암호화해서 보관하기 때문에 기존 플라스틱 방식의 사원증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이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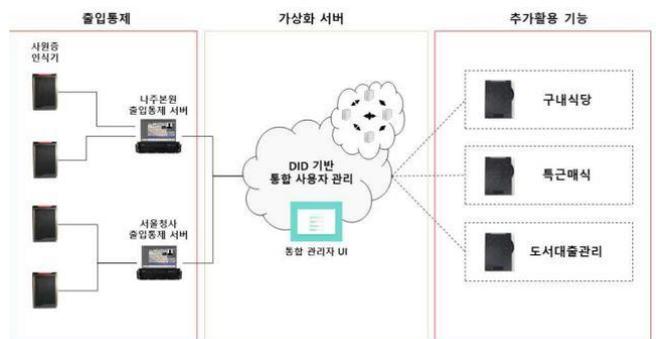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시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여부를 결정하는데,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주요 제공 서비스로는 신원증명, 증명서 발급, 시스템 로그인, 청사출입, 도서 대출 등이 있다.

[그림 5] 모바일 앱 및 DID 플랫폼 연계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출입통제 관리 및 부가기능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1년 모바일 신분증 중 모바일 공무원증이 우선 도입되었다.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발급되었다. 올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12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동사는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부터 국내에서 진행된 국가 모바일 신분증 구축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관련 사업도 수주했다. 2023년 12월 기준 17세 이상 전국민은 4,427만 명이었다. 편의점, 병원, 약국 등에서의 신분확인 확대되고 있어 다수의 시민들이 신분증 휴대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빠른 시간내 확산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동사는 한 국가의 전체 & 4,000만명이 넘는 모바일 신분증 구축을 한 기업이 되는 것이다.

국내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관련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글로벌로의 진출이 기대된다. UN은 2033년까지 전 세계 신분증 미보유자에게 모바일 신분증을 보급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UN은 사회 복지 및 금융 포용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 ID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신분증 사각 지대에 있고 금융 안정성이 낮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요가 높다. 디지털ID를 하는 경쟁사들이 존재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는 유일하다는 점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PwC(글로벌 컨설팅업체)는 2025년까지 디지털 신분증 시장 규모가 33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각국 정부 및 국제 기구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솔루션 제공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림 7] 모바일 공무원증 주요 제공 서비스



자료: 행정안전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정부기관들(한국조폐공사, KOTRA)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조폐공사에서 한국형 모바일 신분증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조폐공사는 세계은행과 한국형 모바일신분증 확산 협력 및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개발도상국에 믿을 수 있는 디지털 신분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계 디지털 신분증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해당 자리에서 최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한국형 모바일 신분증 K-DID에 대한 많은 관심을 도입을 요청받고 있다고 공유했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DICT)에서 한국형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요청한 내용과 코스타리카 과학혁신기술통신부와의 협력계획을 공유했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 국가이자 OECD 회원국으로 디지털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최근 필리핀 정부도 자국 디지털 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요청해 한국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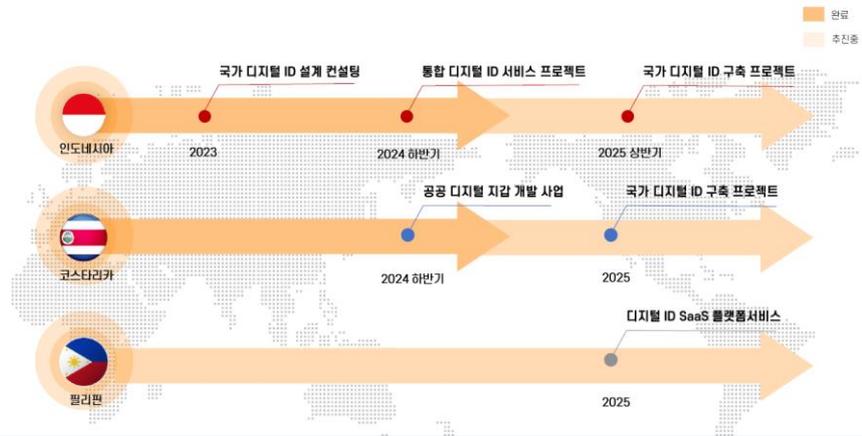
지난 8월, 한국조폐공사는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를 찾아 한국형 디지털 신분증 K-DID 도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CIS지역(독립국가연합)까지 한국형 모바일 신분증 K-DID의 디지털기술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사는 한국조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로의 진출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인도네시아와 국가 디지털 ID 설계 컨설팅을 이미 시작했으며 올해 하반기 통합 디지털 ID 서비스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5년에는 국가 디지털 ID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스타리카와는 올해 공공 디지털 지갑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국가 디지털 ID 구축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에서도 2025년 디지털 ID 플랫폼서비스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중남미, 동남아 다수의 국가들과 디지털 ID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9월 11일 일본 지장자치단체 6곳을 개당으로 블록체인 기반 국가 디지털 ID 설명회를 개최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일본 지자체 디지털 전환 진출전략 설명회의 일환이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라는 점에서 동사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림 8] 국가 디지털 ID 구축 예상 추진 일정 및 국가



자료: 라온시큐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4분기 출시 전망

테일러 스위프트, 조 바이든, 엘런 머스크, 스칼렛 요한스...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딥페이크의 범죄에 사용된 유명인사라는 점이다. 딥페이크는 데이터를 통해 사물을 분류하고 학습하여 인간처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딥 러닝 기술과 가짜(Fake)의 합성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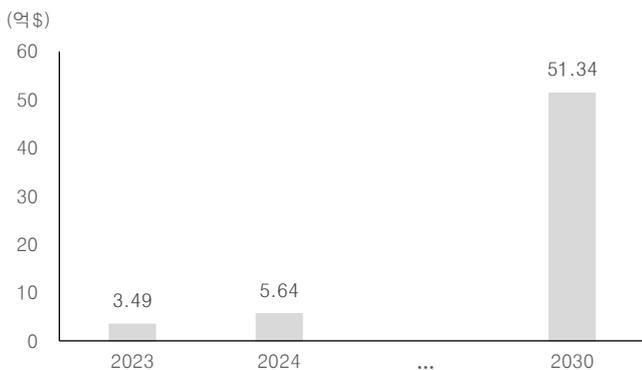
유로뉴스에 따르면 유럽에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 96%가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며, 미국에서는 스칼렛 요한슨, 테일러 스위프트 등 유명인들이 딥페이크 포르노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2024년 2월 국내 지방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퍼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 혹은 기업가나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수법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허위 뉴스 영상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 사이버보안 기업 딥트레이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확인된 딥페이크는 1만 4,678건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했다. 홈시큐리티허어로스에 따르면 적발된 온라인 딥페이크 동영상 수는 2019년 1만 4,741건에서 2023년 9만 5,820건으로 연평균 59.7%로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500건이 넘는 딥페이크 사건을 수사중이다.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9월 6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2차 가해 행위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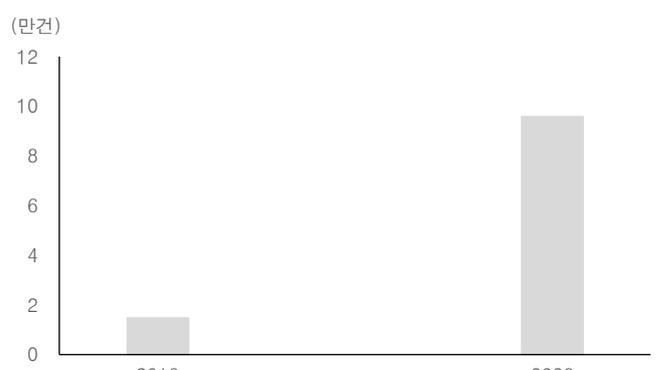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가 9월 1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신속한 입법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9월 중 딥페이크 영상물의 처벌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회복지원, 성인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잠입수사 확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림 9] 딥페이크 AI 시장: 연평균 +44.5%(2024E~2030E)



자료:마켓앤마켓,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온라인 딥페이크 동영상 수: 연평균 +59.7%(2019~2023년)



자료: 홈시큐리티허어로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딥페이크를 탐지하기 위한 R&D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딥페이크 탐지 S/W를 개발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단속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9월 19일에는 2025년 27억원, 2027년까지 3년간 총 91억원을 투입하여 딥페이크, 딥보이스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활용하는 허위영상물 탐지 기술 고도화에도 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해외에서 시작되어 서양인 위주의 데이터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합성된 영상에 대해서는 탐지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샌즈랩이 출시한 페이크체크는 생성형 AI역기능 중 하나인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서비스이다. 페이크체크는 사용자가 직접 웹사이트에 접속해 딥페이크가 의심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수초 내로 위조 진위 여부를 분석해 판별 결과를 알려준다. 하지만 이미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동사는 연내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감지 안면인식 기술을 자사 소비자용 모바일 보안 어플리케이션(라온 모바일 시큐리티)에 탑재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탐지 기술은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자동으로 찾아 걸러내는 서비스로, 이를 위해 정상 얼굴과 합성된 얼굴을 각각 학습하여 이를 상호 비교해 분류할 수 있도록 AI를 학습시키고 있다.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알고리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미지부터 동영상, 안면 추출, 주파수 계열 변환 등 다양한 변수들까지 측정한다. 이로 인해 부자연스러운 입모양이나 피부 톤 등 미세한 부분까지 탐지 가능하다. 이후 기업이나 기관 대상 API 형태로 제공하는 B2B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림 11]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10월 출시 예정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화이트해커: 국내 유일 프리미엄 모의해킹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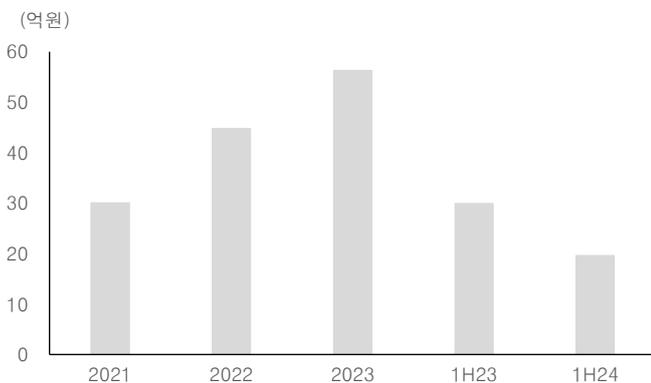
2024년 상반기 민간분야 주요 사이버 위협동향(과기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분야 주요 사이버 사건 신고가 증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 899건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서버 해킹건수가 504건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보안 관리가 취약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웹 취약점을 악용한 서버 해킹이 증가했다.

2023년 국내 공공분야 대상으로 하루 평균 162만여 건의 국가배후 및 국제 해킹조직의 공격 시도를 탐지 및 대응했다. 2022년 119만건 대비 36% 증가한 수치이다. 공격 주체는 북한이 80%로 가장 많았으면, 중국-러시아 순서였다.

2022년 과기정통부의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발표되었다.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중 하나로 사이버보안을 선정했으며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하고 4대 방어기술(억제, 보호, 탐지, 대응) 개발 등 사이버 보안을 신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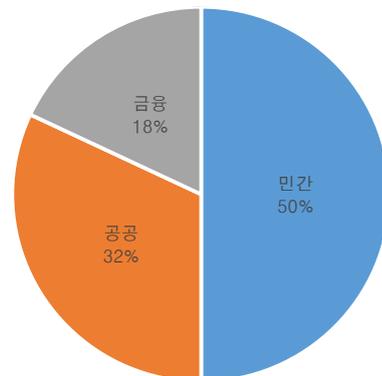
동사는 국가 지정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며 국내 유일하게 프리미엄 모의해킹(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보안 취약점을 평가하여 대응 방안 제시) 기업으로 국내외 해커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다수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의 요청을 기반으로 시스템의 보안성을 평가하거나, 모의침투를 통해 취약점을 찾아내고 보완하는 등의 방식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30.0억원에서 2022년 33.8억원, 2023년 56.3억원으로 증가했다.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공공/금융 등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출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2] 화이트햇 컨설팅 매출 추이



자료: 라온시큐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화이트햇 컨설팅 고객사 비중



자료: 라온시큐어,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라온시큐어 (042510) 추정재무제표 (K-IFRS 연결)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F
매출액	372	433	468	518	596
매출원가	171	188	167	233	265
매출총이익	200	246	301	286	331
판매비	235	256	258	302	328
영업이익	-35	-10	43	-17	3
EBITDA	-15	14	66	15	17
영업외손익	-63	-40	29	67	67
외환관련손익	-1	0	0	0	0
이자손익	-13	-4	-9	0	-1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기타	-49	-36	38	67	6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8	-50	72	50	70
법인세비용	-11	0	-11	-10	-8
계속사업순이익	-88	-49	83	60	78
중단사업순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88	-49	83	60	78
지배지분순이익	-101	-66	67	42	54
포괄순이익	-91	-48	86	61	78
지배지분포괄이익	-104	-64	69	42	54

주: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F
영업활동 현금흐름	13	39	77	80	101
당기순이익	-88	-49	83	60	78
감가상각비	18	17	22	29	12
외환손익	0	0	0	0	0
중속, 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자산부채의 증감	7	12	3	0	21
기타현금흐름	75	59	-31	-9	-9
투자활동 현금흐름	-71	-48	-233	69	-75
투자자산	-38	-40	-94	86	-8
유형자산 증가 (CAPEX)	-5	-6	-4	-18	0
유형자산 감소	0	0	0	0	0
기타현금흐름	-29	-3	-134	1	-66
재무활동 현금흐름	7	198	-16	-13	45
단기차입금	-17	-19	27	-17	0
사채 및 장기차입금	-117	213	-87	-80	0
자본	136	63	0	88	0
현금배당	0	0	0	0	0
기타현금흐름	4	-59	45	-4	45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3	0	7	0	-258
현금의 증감	-56	188	-165	136	-186
기초 현금	235	180	368	203	339
기말 현금	180	368	203	339	153
NOPLAT	-35	-10	50	-20	3
FCF	8	33	72	62	101

자료: 유안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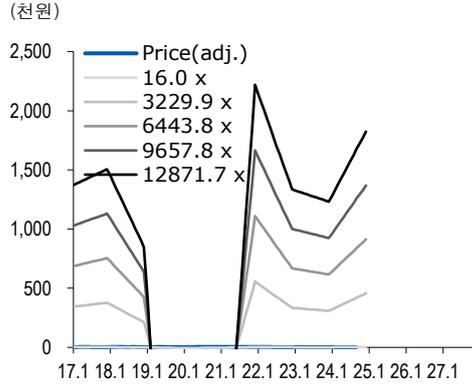
-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 2. PER 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증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 3. ROE, ROA의 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F
유동자산	363	567	566	345	458
현금및현금성자산	180	368	203	78	15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99	90	88	138	163
재고자산	0	0	3	3	3
비유동자산	148	176	202	411	405
유형자산	35	81	14	24	12
관계기업 등 지분관련자산	0	0	0	0	0
기타투자자산	33	40	120	190	198
자산총계	510	743	769	756	863
유동부채	152	124	315	217	244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90	111	104	136	157
단기차입금	1	0	0	10	10
유동성장기부채	15	12	7	27	27
비유동부채	16	258	3	80	81
장기차입금	0	0	0	0	0
사채	0	154	0	0	0
부채총계	168	382	318	297	326
지배지분	313	311	380	461	515
자본금	187	193	193	280	280
자본잉여금	108	165	165	167	167
이익잉여금	21	-45	21	63	116
비지배지분	30	50	71	-2	22
자본총계	343	361	451	459	537
순차입금	-187	-209	-266	-71	-154
총차입금	70	264	204	107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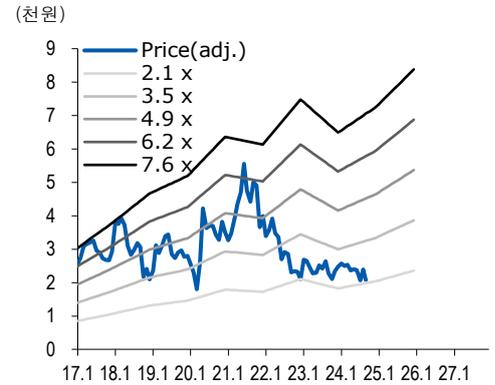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F
EPS	-310	-172	172	104	96
BPS	836	805	983	853	953
EBITDAPS	-46	37	172	38	31
SPS	1,145	1,134	1,211	1,291	1,064
DPS	0	0	0	0	0
PER	-10.5	-25.8	17.6	23.6	21.7
PBR	3.9	5.5	3.1	2.9	2.2
EV/EBITDA	-59.6	108.6	14.8	57.7	60.4
PSR	2.9	3.9	2.5	1.9	2.0

결산(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2024F
매출액 증가율 (%)	22.0	16.7	8.0	10.7	15.0
영업이익 증가율 (%)	적전	적지	흑전	적전	-118.0
지배순이익 증가율 (%)	적전	적지	흑전	-37.6	28.8
매출총이익률 (%)	53.9	56.7	64.3	55.1	55.5
영업이익률 (%)	-9.5	-2.3	9.2	-3.2	0.5
지배순이익률 (%)	-27.1	-15.1	14.2	8.0	9.0
EBITDA 마진 (%)	-4.0	3.3	14.2	3.0	2.9
ROIC	-33.7	-11.8	108.1	-78.1	10.1
ROA	-19.7	-10.5	8.8	5.5	6.6
ROE	-38.0	-21.0	19.3	9.9	11.0
부채비율 (%)	48.9	105.8	70.5	64.7	60.6
순차입금/자기자본 (%)	-59.7	-67.3	-69.9	-15.3	-30.0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2.1	-1.8	2.3	-0.7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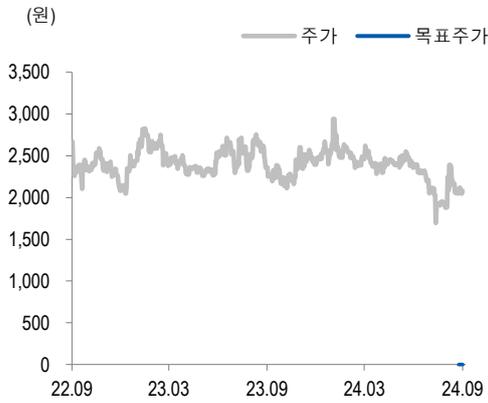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라온시큐어 (04251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4-09-25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87.1
Hold(중립)	12.9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4-09-25

※해의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